

롯데케미칼(주) 첨단소재 탱크터미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주민고지(요약서)

1. 사업장 현황

사업장 상호	롯데케미칼(주) 첨단소재 탱크터미널	사업자 등록번호	-
대표자	대표이사	사업장 대표전화	061-689-1301
사업장 위치	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4로 166-42(중흥동)		
담당자	최재선	담당자 연락처	061-689-1305

2.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

물질	색상	냄새	사고위험성
아크릴로니트릴	▶ 무색에서 옅은 노란색	▶ 실제로 무취거나 매우 연한 복숭아 냄새	▶ 고인화성 물질로 열, 스파크 또는 화염에 노출시 매우 위험한 화재위험성이 있음
1,3 부타디엔	▶ 무색	▶ 가솔린과 같은 냄새	▶ 열, 스파크 또는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▶ 공기와 결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함

3. 사고 시 행동요령

- 위험물질의 유출이 일어난 장소에 있는 경우 즉시 여수소방서(119) 또는 여수시청(061-659-2816)에 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을 경고한 후, 그 지역을 벗어남

- 사고지점 가까이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고,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직각방향으로 대피를 함
- 대피 시 가능한 방독면, 물수건,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, 위익나 비닐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
- 건물 내로 대피 시 창문을 닫고 문 틈을 꼭 막아서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함
- 오염된 지역 내에서는 식수나 음식물은 먹지 말고 오염이 의심되는 것은 만지지 말 것

4. 응급 조치 요령(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)

- 화학물질 정보시스템(icis.me.go.kr)을 찾아보거나, 화학물질 정보시스템(☎032-560-7328)의 전화를 통한 응급조치 요령 정보 확보토록 함.

물질	아크릴로니트릴
흡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즉시 오염 지역을 벗어나, 신선한 공기를 깊게 호흡하게 할 것 ▶ 기침이나 호흡 곤란, 입, 후두나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등과 같은 증상이 없더라도, 즉시 의사를 호출하고, 병원으로 환자를 옮길 준비를 할 것 ▶ 호흡이 곤란하면, 산소를 공급할 것 ▶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은 피할 것 ▶ 호흡 정지 시, 산소와 백 및 마스크와 같은 적절한 의학 장비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
피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오염된 옷을 제거하고 격리하는 동안, 즉각 다량의 물로 노출된 피부를 씻어낼 것 ▶ 모든 노출 부위를 비누와 물로 천천히 씻어낼 것 ▶ 홍반이나 자극과 같은 증상이 없더라도 즉시 병원이나 중독관리센터에 전화를 할 것 ▶ 노출된 부위를 씻은 뒤, 치료를 위해 환자를 병원으로 즉시 옮길 것 ▶ 즉시 다량의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정도 씻어내고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할 것 ▶ 옷은 재사용 전에 세탁할 것
안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우선, 환자의 콘택트 렌즈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착용 시 제거할 것 ▶ 환자의 눈을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20-30분간 씻어주면서, 동시에 병원 또는 중독관리센터에 연락을 취할 것 ▶ 의사의 지시가 없이, 환자의 눈에 연고, 오일 또는 다른 약물을 투여하지 말 것 ▶ 홍반이나 자극과 같은 증상이 없더라도, 눈을 씻어낸 후, 즉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길 것 ▶ 종종 눈꺼풀을 위아래로 들어올려, 최소한 15분 정도, 다량의 물로 눈을 씻을 것
경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서 경련하지 않으면, 화학물질을 희석하기 위해서 물을 1 내지 2잔을 주고, 즉시 병원이나 중독관리센터에 전화할 것 ▶ 일반적으로, 화학물질이 위로 흡인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의사가 없는 곳에서 구토를 유도하는 것은 권하지 않음 ▶ 하지만, 환자가 의식이 있으며 경련을 일으키지 않고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, 삼킨 화학물질이 고독성이므로 구토 유도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함. 토근시럽이나 소금물은 응급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을 수 있음 ▶ 즉시 환자를 병원으로 수송할 것 ▶ 만약 환자에게 경련이 있거나 의식이 없으면, 입으로 어떤 것도 공급해서는 안 되고, 환자의 기도를 열고, 한쪽 옆으로 머리를 몸 보다 낮게 하여 눕힐 것 ▶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▶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, 2~4컵 정도 우유나 물을 줄 것

물질	1,3 부타디엔
흡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호흡기 근육 마비를 유발할 수 있음 ▶ 다른 증상은 기면, 인후염, 코피, 목섬, 기침, 흉부압박, 메스꺼움, 구역질, 어지러움, 어지럼증, 열을 포함함 ▶ 증기상 물질을 흡입할 경우 수면, 긴장 완화, 반사작용의 둔화, 근육 운동의 축소, 현기증이 수반될 수 있음 ▶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이 물질은 사람에 따라 호흡기 자극성의 원인이 될 수 있음.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은 폐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▶ 고농도의 기체/증기를 흡입하면 기침과 메스꺼움을 동반한 폐의 자극, 두통과 현기증, 반사작용 저하, 피로, 운동실조증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
피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피부 자극을 유발함 ▶ 피부로 흡수되면 유해함 ▶ 흡수될 경우, 섭취·흡입했을 때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▶ 흡수된 후, 전신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▶ 이 물질은 직접적인 접촉 후 또는 시간이 경과된 후에, 약간의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일부 증거가 있음 ▶ 반복 노출은 홍반, 부어오름, 수포 등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음 ▶ 이 물질을 베인 상처, 찰과상 또는 자극을 일으킨 피부에 노출시키지 말 것 ▶ 베임, 찰과상 또는 환부를 통하여 혈액 속에 들어갈 경우, 유해한 영향과 함께 전신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▶ 물질 사용에 앞서, 피부를 검사하고, 모든 외상으로 부터 적절히 보호할 것
안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심한 눈 자극을 일으킴 ▶ 각막손상이 일어날 수 있음 ▶ 망막염이 일어날 수 있음 ▶ 망막손상이 일어날 수 있음 ▶ 점안 24시간 이후 눈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음 ▶ 통증과 함께 심한 염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▶ 응급처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력을 영원히 잃을 수 있음 ▶ 반복 노출은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음
경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섭취시 유해함 ▶ 소화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▶ 사고로 섭취한 경우는 위해함; 동물 실험 결과 150g 미만의 섭취는 치명적이거나 건강에 매우 심한 손상을 주었음 ▶ 상업/산업적인 환경으로의 유입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▶ 액체는 위장에 불쾌감을 유발함 ▶ 섭취 시 구역질, 고통 및 구토가 발생할 수 있음 ▶ 흡인에 의해 구토물이 폐에 들어가게 되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화학적 폐렴을 유발할 수 있음

